

## 민주화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가?

- 4·19 혁명 60주년, 5·18 항쟁 40주년을 맞아 -

**김 동 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소장

국가나 사회공동체의 오늘을 있게 만든 역사적 사건은 모든 후세대의 구성원이 응당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 국가의 독립, 정치적 민주화, 대중의 삶을 개선시킨 소수의 선구적인 투쟁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사회적 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의 중대사건에서 입은 자신의 고통과 희생이 부당하게 부인, 무시되거나, 국가의 존립이나 정치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 특히 자신이 겪은 일들에 대해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국가로부터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함과 동시에 그 객관적 성격을 이해할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을 개인화, 사유화하여 분노에 찬 '인정투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 희생자들의 기억의 사유화, 그것에 기초한 당사자주의 문제해결은 오히려 그 사건을 공적 기억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희생과 공로를 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사람들을 점점 사회로부터 고립시킨다. 민주화 운동과 같은 역사적 사건은 참가 당사자만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공의 것이며, 오늘을 사는 국민과 청년들에게 재해석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4·19 혁명과 5·18 항쟁, 그리고 모든 민주화 운동이 공공의 것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오늘 한국에서 정치사회적 민주화를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기억으로 자리매김되고, 민주주의의 질적인 심화를 위한 역사적 소재로서 부단히 현재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올해는 4·19 혁명과 5·18 항쟁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인지 먼저 논의하고 기념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역사에 대한 기억은 온 국민의 것이 될 때 진정으로 위대한 것이 되고, 그 정신이 살아 움직일 것이다.